

광주 지하철 2호선 수완 정거장 풍영정천 이면도로쪽 옮긴다

대형 지장물·초근접 문제로 시공 불가 판단...보완설계 하반기 공청회 정거장 95m 이동 접근성 개선...공사비 291억 줄고 출입구 2곳 확대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13공구의 235정거장 위치를 당초 입방울대로 중앙에서 풍영정천 이면도로 방향으로 옮긴다.

수완지하차도와 대형건물 밀집 구간 사이에서 현실적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면서, 지장물 이설비를 포함했을 경우 공사비 291억원을 줄이고 출입구도 두 배로 늘리는 대안 노선이 최종 채택됐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35정거장 일원 대안 노선 검토 결과 풍영정천 이면도로로 정거장을 조정하는 2안을 확정해 보완설계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13공구는 수완우미린2차에서 수완지하차도를 거쳐 운남교차로까지 2.63km 구간에 정거장 2개소와 환기구 2곳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687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 1월 24일부터 2029년 3월 16일까지로 잡혔고, 1차분은 2024년 12월 1일 착공했다. 시공은 DL이앤씨 등 2개사, 감리는 도화엔지니어링 등 5개사가 맡고 있다.

문제는 235정거장 일원의 개착공법 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대형건물과 가시설 벽체 사이가 25cm 안팎으로 초밀접해 작업공간이 나오지 않고, 최소 차로폭 3

m와 보행공간도 확보가 어려웠다.

열수송관 등 대형 지장물 14종을 옮겨야 하는 데다 병원·은행·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363세대의 단전 피해도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 측은 지상기기 이설에 52억4000만원과 584일이 필요하다고 회신했고, 수완에너지는 이설 개략 공사비로 81억3000만원을 제시했다.

시는 2024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차례 설계도서 적정성 검토회의를 거친 뒤, 지난해 9월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현실적 시공 불가 판정을 받았다.

12월 기술자문위원회(8명)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고, 시는 지난해 12월 13일 13공구 2차분 공사를 일시 정지했다.

대안은 대심도 터널공법(1안)과 풍영정천 이면도로 정거장 위치조정(2안) 두 갈래로 압축됐다.

1차 주민설명회 당시 함께 거론됐던 수완지하

차도 철거안은 시 교통정책연구실 시뮬레이션 결과 철거 기간만 36개월이 걸리고 교통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돼 지난 4월 검토 단계에서 제외됐다.

1안 대심도 터널공법은 심도가 지하 46m로 아파트 16층 높이에 달해 비상 대피와 이용자 편의 면에서 불리하고, 공사비도 2124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증가가 예상됐다.

선택된 2안은 정거장을 풍영정천 이면도로 쪽으로 약 95m 옮기는 방식이다.

총연장은 2564m로 줄고 심도는 지하 21m로 아파트 7층 높이까지 낮아져 이용자 접근성이 개선된다.

공사비는 1733억원으로, 당초 노선 추정치 2024억원(현 설계 1624억원에 지장물 이설 400억원 추가)보다 291억원이 줄어든다.

출입구도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 다방면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도시철도건설본부 설명이다. 다만 공사기간은 2030년 9월까지 당초보다 18개월 연장된다.

지난 1월 14일 수완동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1차 주민설명회에 이어, 4월 20일 본부 주관으로 열린 2차 설명회에서는 설문 응답자 68명 가운데 65명(96%)이 2안을 선택했다.

지난해 11월 추가 지반조사에서도 풍화암 저층을 피하기 위한 정거장 종점 방향 이동(90m)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올 상반기 보완설계에 착수해 하반기 주민공청회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하반기 설계 완료와 공사 재개를 목표로 잡았다.

보완설계와 별도로 시공 가능한 구간을 먼저 추려 공사를 조기 재개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와! 이겼다”

11일 광주시 북구 동신여중 체육대회 줄다리기에서 승리한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공약 100% 달성

11개 실천과제 전원 이행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사진)는 11일 “제12대 후반기 의장 공약사항 추진 결과 총 11개 실천과제를 모두 완료해 공약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7월 취임한 김태균 의장은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 ‘의원 역량 강화 활동 적극 지원’,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 등 3대 공약을 중심으로 11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해 왔다.

전남도의회는 후반기 임기 두달 여를 남겨둔 상황에서, 공약을 모두 완수해 도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자평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 분야로,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와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한층 고도화했고, 인사교류 활성화와 정책지원관 정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의정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의회 설명이다.

아울러 ‘의원 역량 강화 활동 적극 지원’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 운영 활성화와 특별위원회 지원을 통해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지 방문 및 국내외 교류 지원을 확대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정책 태스크포스(TF) 운영, 지역 현안 해결 중심의 소통 강화,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 확대 등을 추진해 도민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균 의장은 “공약 100% 달성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가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행해 온 결과”라며 “정책 지원체계 강화와 의원 역량 제고,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의정 성과를 만들어내며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철강·석유화학업계 숨통 틔운다

여수·광양에 58억 투입...기업당 지원금 최대 1.5억으로 확대

전남도가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과 생산비 급등으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남도는 우선적으로 광양만권 중소철강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의 물류비를 긴급 지원했다.

또 정부 추경을 통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광양에 국비 40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지방비를 더해 총 58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기업당 지원 규모도 기존 최대 1억 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려 경영 여건에 따라 기업이 시제품 제작, 기술 사업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폭넓게 선택하도록 했다.

산업 현장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작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체질 개선을 위한 기술 고도화도 추진, 지난 5년간 소부장 생태계의 기틀을 닦은 ‘소부장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60억 원 규모의 2단계 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

2단계 사업은 ‘위기산업 타깃형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I)을 연계한 융합 연구개발을 추진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사후관리(3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산업통상부와 기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준하는 실질적 혜택을 끌어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전남도 김기홍 전라산업국장 “전남 경제의 핵심 축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을 위해 가능하면 모든 행정·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

‘인공태양’ 키우는 전남...핵융합 공모 2건 선정

국비 70억원 확보...리튬·삼중수소 기술 개발 추진

전남도의 핵심 현안인 핵융합 분야 기술력 확보에 정진호가 쫓겨왔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핵융합 플러그인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한 결과, 리튬 동위원소 추출 기술 개발, 신개념 삼중수소 증식제 제조 기술 개발 등 2개 과제를 선정했다.

과기부는 산·학·연 공동으로 국가 차원의 핵융합(인공태양) 분야 기술 난제를 해결하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데 따라 목포대와

전남테크노파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CIS케이칼 등 산·학·연 전문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향후 핵융합 발전의 핵심 연료인 리튬과 삼중수소 관련 양산 기술 확보 연구에 나선다.

전남도는 우선, 기술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준비 단계로, 올해 말까지 국비 1억원을 투입해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거쳐 4년 간 과제당 35억원씩 총 7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